

日 강제동원 피해자 기록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시민역사관’ 건립 본격 추진…모금 운동 예정
소송 기록·영상 등 이금주 할머니 자료 1000여점 디지털 정리 중
“국가기관 기증 요청 있었지만 소중한 자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과 기억이 보관되는 역사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7일 “일본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동원돼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삶의 기록과 일제를 상대로 한 소송 기록 등을 전시할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사관 건립을 위한 고민과 논의는 시민모임 내부에서 지속됐지만 실행에 옮겨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가정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민모임 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끝난다면 이 역사를 잊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일제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잊혀지고 망각되길 바랄 것”이라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기억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우선 평생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촉구,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대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인 이금주(101)할머니가 기증한 1000여 점의 자료를 분류,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금주 할머니가 일본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7차례의 소송 기록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상,

사진물 등이다.

이금주 할머니의 기증자료는 그 양이 방대해 그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려 보관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이 할머니의 기증 자료는 국가기록원 등 여러 기관에서 출금 기증 요청을 받기도 했다.

시민모임 측은 “소중하고 희귀한 역사적 기증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했다. 하지만 기증자료는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노력의 산물인 만큼 결코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건립될 역사관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도 함께 선보이며 역사교육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역사관 규모와 목표 모금액, 개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모임은 모금활동을 위한 등록절차를 거쳐 역사관 건립을 위한 물꼬를 튼다는 입장이다.

이국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생을 건 건 싸움이 잊혀지면 ‘역사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문제로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역사의 정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91명이 생존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실에 보관중인 이금주 할머니 기증자료.



하루 4번 도로 미세먼지가 싹!

광주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인 17일 오후 문화전당에서 금남로 4가역 구간 도로에 물이 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루 4차례 클린로드(도로살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바뀌는 2022 수능 ‘첫 점검’

23~25일 학력평가…출제 유형·문제풀이 패턴 파악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앞선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바뀐 수능 체제에 적응하는 기회로 삼고 결과는 철저히 분석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3월 학평은 오는 23~25일 치러진다. 고1은 23일, 고2 24일, 고3은 마지막 날인 25일 시험을 치른다.

3월 학평은 고3 수험생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6월·9월 모의평가와 다르게 출제 유형이 응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향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3월 학평은 개편된 수능 방식이 적용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3월 학평을 통해 문제 출제

유형을 점검하고 달라진 문제 풀이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1월18일 시행되는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한 첫 문·이과 통합형 시험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도입됐고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축소됐다. 수학과 사회·과학탐구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여기에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등 변화폭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이 개편되면서 과거의 문제풀이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킬러 문항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살펴보고 정해진 시간에 다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폭 관계회복 프로그램

광주서부교육청 리플릿 배포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2021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리플릿을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리플릿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단위학교 정착을 위해 ‘회복적 서클 교원연구회’ 교사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제작된 이번 리플릿은 ‘회복적 정의’를 접목시켜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리플릿 배부를 통해 단위학교 교사들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 관계회복은 ‘관계회복 지원단’을 통해 그룹 간 갈등 조정은 관계회복 지원기관(청소년 화해놀이타협의회)의 위탁운영을 통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주정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에 있어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 상황 속 갈등 조정은 물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서로를 다독이고 보듬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관계회복 지원단을 구축했다. 지원단은 ‘관계회복 직무연수(회복적 서클)’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등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컨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예산 지원한다”

유성수 전남도의원 개정안 발의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행 ‘대안교육 위탁’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으로 구체화됐다.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성수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